

스위스의 山岳畜産

송 찬 원
 <농수산부 축산과장>

다음은 지난 9월 스위스 정부의 초청으로 스위스의 산악축산과 영국, 불란서등의 축산업계를 돌아보고 귀국한 송찬원 축산과장이 본협회 회원 및 월간양계 독자를 위해 특별히 기고해 준 것임을 밝혀 둔다. (관련화보 참조).....<편집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이름난 스위스는 구라과에 위치한 너무나도 잘 알려진 山岳으로 形成된 조그만 나라로서 알프스山脈이 가로놓여 관광국으로 그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는 평화스러운 나라다.

이 나라의 農業은 주로 牧畜産으로 有名하며 山岳地帶를 中心으로 小規模 畜産이 發達된 나라로서 地形이나 氣候 그리고 營農規模에서 그 方法은 우리나라에 適合하여 진작 소개된적한테도 스위스의 畜産은 우리나라에 그다지 詳細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理由로서는 우리나라 畜産인이 스위스에 가볼 機會가 많지 않았으며 더욱 구라과地域은 偶蹄類 動物에서 發生하는 口蹄疫(Foot and Mouth Disease)때문에 家畜과 畜産物이 輸入禁止 되어 있다는데서 그나마 이 나라 畜産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나는 스위스政府 초청으로 平素에 가보고 싶었던 구라과中 스위스와 種畜生産國家인 英國, 그리고 토끼로서 有名한 불란서를 돌아보게 되어 비록 짧은 期間이었지만 이 紙面을 통해 본대로 들은대로 소개하여 우리나라 畜産人에게 參考케 하고자 한다.

먼저 스위스란 어느 程度의 나라며 어떠한 農産物이 生産되는가를 소개하면 面積은 우리나라 보다 작은 41,293km²이며 人口는 서울만 한 6,269千名으로 男子가 49.3%, 女子는 50.

7%로 약간 많은 편이다.

이 나라 國民의 言語는 65%가 獨逸語를 使用하고 있으며 불란서語18%, 伊太利語12%, 其他5%를 使用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第一높은 山은 4,634m의 듀워·피크(Dufour Peak)이며 가장 높은데 位置한 마을은 2,126m나되며 81個所의 크고 작은 湖水가 곳곳에 아름답게 分布되어 있으며 其中의 많은 湖水는 人工的으로 만든 것이다.

主要農産物은 養畜業以外에 밀·옥수수·담배·포도 등으로 農業 總生産額은 17億弗이며 其中 畜産物 生産額은 77%를 차지하고 있는 點으로 보더라도 스위스의 農業은 바로 畜産業이 主種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위스의 家畜飼育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스위스의 家畜現況 單位:千頭(首)

소	豚	馬	緬羊	닭
1,974	2,065	48	359	6,539

이 나라의 소는 山岳地帶에서 飼育하고 있는 부라운 스위스種(Brown Swiss)이 乳肉兼用種을 이루고 있으며 그리고 썸멘탈(Simental)과 부랙크화이트(Black & white)와 약간의 홀스타인種이 飼育되고 있다.

돼지는 國內自給용으로 버크샤 햄프샤 그리고 란드레이스種으로 햄이나 베이콘용으로 飼

育되고 있어서 綿羊과 山羊은 山岳地帶 農民이 몇十頭式 飼育하고 있다. 養鷄는 그리 活發하지 못하여 겨우 6,539千首에 不過하며 鷄卵價格이 따라서 相當이 비싸게 去來되고 있다.

이나라에는 우리나라 初生鑑別師 두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大韓養鷄協會 구라과 地域 分會 役割을 맡아 이地域의 鑑別師의 職場알선等 海外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때 흐뭇한 마음과 함께 보다 많은 人員의 進出이 아쉬웠다.

스위스의 畜産을 우리나라에 꼭 소개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飼養規模라고 본다. 스위스 國民의 所得은 年間 4千弗로서 相當히 높은 水準의 生活을 하고 있으며 소위 飼養規模는 自家努力으로 可能한 頭數를 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生覺할 問題라고 본다.

乳牛의 飼育規模

飼育規模	4頭以下	6~10頭	11~15頭	16~20頭	20頭以上
農家比率	13%	31%	28%	15%	13%

위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우리가 生覺하는 外國의 養畜은 全部가 企業單位 牧場으로만 生覺하다가 이나라의 規模를 보고 한편 우리나라의 酪農規模도 決코적지 않음을 느꼈으며 平均 스위스의 戶當乳牛飼育頭數 13頭로 4,000弗의 國民 所得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단히 評價할 수 없는 點이라고 본다.

특히 재미난 것은 養畜家の 所得이 向上됨에 따라 都市로 移動하는 것을 막기 爲하여 地域에 따라 다르지만 一定地域(高山地帶와 都市로부터의 輿地帶)의 農家에게는 소 1頭當 얼마씩 國家가 補助하여 몇十年 내지는 百餘年以上된 農家를 保存하는 政策을 쓰고 있으며 이에 所要되는 豫算은 觀光收入에서 充當하고 있다. 이것은 畜産의 現狀維持上도 必要하겠으나 그보다 더욱 이나라에서 必要한 것은 觀光資源으로서 離農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가지 政府의 支援政策으로서의 輿地의 農家가 낡은 집과 畜舍를 새로 建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에對하여 40% 國家가 補助하되 定해진 家族數에 맞는 設計에 依해 지어야 하며 畜舍에 對하여는 60%를 補助하여 山間地帶 農家維持에 努力하고 있음을 볼때 꿈같은 나라의 이야기만 같았다.

이런 政策은 이나라의 觀光資源의 維持上이나 畜産物의 供給上 絕對로 必要한 일일 것이며, 畜産物의 價格保障을 爲해서도 價格의 決定은 國家가 하고 있으며 牛乳 1kg當 納乳價格은 150원으로 우리나라 보다 높은 便이었다.

이나라 農民은 全部가 우리나라에서의 새마을 指導者나 篤農가들 처럼 努力과 忍耐로서 그험한 山岳地帶에서 잘사는 터전을 마련함을 볼 수 있었다.

스위스의 平均 1頭當 牛乳生産量은 4.5톤이며 農家에서 生産되는 숙송아지는 肥育農家에 팔거나 自家에서 12~14個月에 450kg까지 肥育하여 한마리당 950\$로 出荷하고 있었다.

이나라는 國土의 面積이 작은 데다가 알프스山脈이 가로놓여 養畜農家の 規模가 적은 便이며 草地는 低地帶에나 잘가꾸어져있고 高山地帶(1,500m以上)에는 눈사태로 굴러나린 돌산으로 이루어져 그속에서 자라난 自然草地나마 여름한철 모자라는 飼料(풀)의 解決을 爲해 3個月 移動하여 放牧生活을 하고 있었으며 어느 山中에라도 道路는 完全포장되었고 電氣가 들어와 牛乳의 集乳가 2日間隔으로 오더라도 冷却機에 貯藏되어 不便을 못느끼고 있었다.

이나라 山地畜産의 發展과 維持는 바로 道路와 電氣가 完備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와 같이 험한 山속에서의 營農이 可能함을 볼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山地開發은 餘地가 充分하다고 느꼈으며 앞으로 可能만 하다면 太白山脈, 지리산脈等에 道路와 電氣만 國家가 먼저 解決을 해줄 경우 우리나라도 스위스 못지 않은 山地農業이 可能할 것이며 觀光資源또한 풍부하게 마련될 수 있다고 느껴져 혼자 나름대로의 希冀을 갖일 수 있었다.

스위스의 年間 牛乳生産量은 3,200千톤으로서 其中 2,520千톤은 市乳로서 販賣되고 있다. 특히 스위스의 치즈는 世界的으로 有名하

여 農家에서 만들어 市販되는 것도 많다.

스위스의 有名한 에멘팔 치즈工場을 잠깐 소개하면 相當히 規模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갔으니 工場에 到着하고는 너무나 小規模인데 놀랐다.

이 치즈工場主人은 70, 老人으로서 百餘坪 되는 地下一層 地上2層짜리 農家に 施設된 工場으로서 이집에서만 45年間을 이老人과 婦人 그리고 人夫 1名으로 維持하고 있었으며 1日 인근 牧場에서 2,000kg의 生乳를 供給받아 45% 脂肪이 含여된 치즈 90kg짜리 2式을 每日 生産하고 있으며 만드러진 치즈는 地下로 운반되어 15~20日間 소금물로 每日 씻어 저리고 約 3~4個月後에 비로서 包裝되어 輸出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이地域에서의 치즈製造用 牛乳는 엔시리지(Ensilage)를 給與하지 않은 소에서 生産된 牛乳라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工場주위의 農家에서는 전혀 싸이로틀 볼 수 없었던 것도 바로 그理由였음을 알 수 있었다.

스위스의 畜産은 바로 山岳畜産이며 小規模인데다 경사가 심함으로 이곳에는 小型 농기구가 發達 普及되었으며 이의 利用또한 훌륭하게 하고 있었다.

어떤 農家は 草地의 不足으로 100~200坪씩 分散된 조그만 草地의 풀도 알뜰히 가꾸고 있음은 勿論 年 4回式 通期에(幼熟期)刈取利用하고 있으며 이것은 全部 小型 農機具로 作業하고 運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3~4年前 부터 導入되고 있는 래피드(Rapid)農機具는 이나라 小規模山地 牧場에 없어서는 않될 貴重한 機械로 알려져 있었다.

스위스의 農民처럼 부지런한 農民도 없다. 乾草한뭇음 한뭇음마다 全部 세워서 말리는것을 보고 나는 우리나라의 農民이 잘 結實된 벼를 논바닥에 베어놓고 비가와서 썩었다는 말을 들을때 적은 面積, 적은 마리수의 養畜이지만 集約的으로 알뜰 하게 最大限으로 가장 잘 利用하고 있는 스위스의 農家가 잘살고 있음은 만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번 스위스視察에서 얻어진 結論은 우리나라의 山地畜産開發의 可能性을 얻었으며 可能한 빨리 우리도 農家스스로 自家努力에 알맞는 規模의 養畜業으로 誘導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우리는 80年代 農家所得 140萬원을 目標로 뒤고있다. 80年代의 農家所得目標 達成을 爲해서 是 現在와 같이 젖소 5頭만 되어도 고용된 牧夫에 依해 運營되고 있는 우리나라 牧場運營形態속에서 脫皮해주는 길이라고 生覺된다. 勿論 農民의 財力, 받아들일 自勢等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10年 아니면 20年後라도 그러한 時期가 올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努力해야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더욱 부지런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풀의 貴함을 養畜家가 더욱 느껴야 되겠다고 본다. 스위스의 農家は 한방울, 한덩어리의 糞尿도 허실시키지 않고 完全한 糞尿탱크에 貯藏하였다가 草地에 利用하고 있다. 80年前에 建築한 畜舍에도 糞尿탱크는 設置되어 있었으며 雨中에도 어느 農家건 糞尿의 흘러내림을 볼 수 없는 것은 풀을 가꾸는 肥料로 的 再活用的 重要性은 勿論 요즘 대두되고 있는 家畜公害 또한 이들은 그 오랜 옛날부터 認識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본다.

우리과 같이 더욱 좁은 땅속에 살고있는 나라에서는 스위스와 같은 小規模 山岳畜産을 適用할도 바람직한 일이다 보는 사람은 느낄 것이다.

앞으로 구라파를 여행하는 분들을 爲해 권하고 싶은 것은 스위스의 畜産을 보라고 하고 싶다.

아니 스위스의 외양간을 보라고, 함이 더욱 알맞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 아름다운 프르름은 自然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祖上 代代로 알뜰히 가꾸어 이뤄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希望속에서……. <관련확보 참조>